Macro

미국 고용: 추세일까 잡음일까?

Economist 이정훈, CFA
jhoon.lee@daishin.com

- 미국 2 월 고용 –9.2 만 명 감소해 1 개월 만에 서프라이즈에서 쇼크 전환
- 헬스케어 파업, 기상 악화 등을 감안해도 전반적인 고용 자체가 부진
- 다만 펀더멘털 우려는 일러, 에너지 문제 장기화 없다면 점진적 회복 전망

한 달 만에 서프라이즈에서 쇼크로 전환된 고용

미국 2 월 비농업 취업자는 –9.2 만 명 감소해 시장 예상치(+5.8 만 명)를 대폭 하회했다. 지난 달 +13.0 만 명 깜짝 서프라이즈에서 불과 한 달 만에 고용 쇼크로 전환했다. 실업률은 4.4%로 다시 반등했다.

산업별로 보면 그간 고용 증가를 지탱해오던 헬스케어 취업자가 파업 영향으로 –3.4 만 명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헬스케어 취업자는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면 좀처럼 감소하는 경우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전월비 감소했던 것은 2020 년 12 월이었다. 하지만 헬스케어를 제외한 민간 취업자도 –5.2 만 명 감소하는 등 고용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생각보다 약한 것은 맞지만, 펀더멘털 우려는 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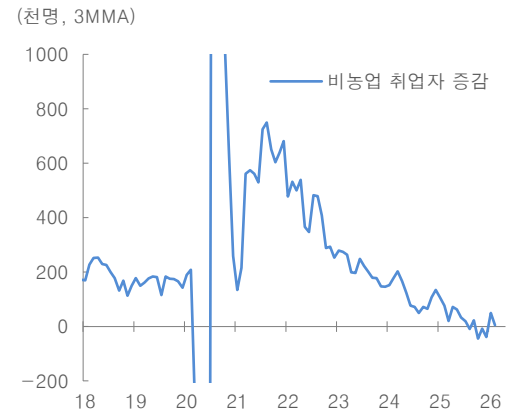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헬스케어 부문의 파업을 제외하고도 이번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한 몇 가지 지적이 있는데, 1) 수개월 來 가장 낮은 응답률, 2) 날씨가 매우 온화했던 1 월 중순 이후 이어진 1 월 말 – 2 월 초 한파 영향이다. 위 요인들이 일시적인 노이즈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고용 상황이 1 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약한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이는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들을 비롯해 시장의 인하 기대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요소이다.

필자가 1 월 고용 지표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은 단순히 양적인 증가 보다는 경기에 민감한 일자리들이 회복되는 신호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번에 과거 데이터가 수정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일부 되돌려졌다. 예컨대 지난 1 월 기준 임시 서비스직 일자리는 3 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으나, 12 월은 감소로 수정되었고 2 월에도 재차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고용 시장이 정말로 취약하다면 해고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하는데, 최근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기사가 다수 나오고 있음에도 아직 대량 해고의 조짐은 없다. 일부 지표를 참고하면 구인수요도 올해 들어 감소세가 정체 중이며, 연초 이후 기업들의 심리 지표 개선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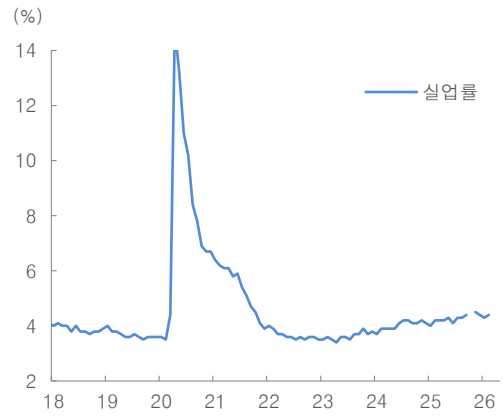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데이터는 '미국 고용 시장이 취약하다' 보다는 '아직 바닥을 다져가는 중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물론 고용 시장은 언제나 생각보다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반박할 만한 지표들이 너무 많다. 3 월에도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작용해 고용이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겠으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고용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1. 최근 3 개월 평균 취업자 +0.6 만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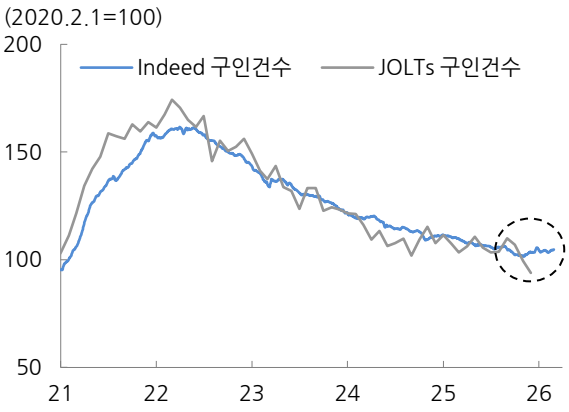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실업률 4.4%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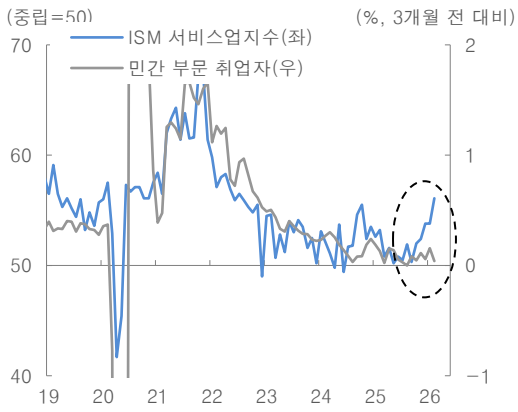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지난 연말 이후 구인건수 감소 나타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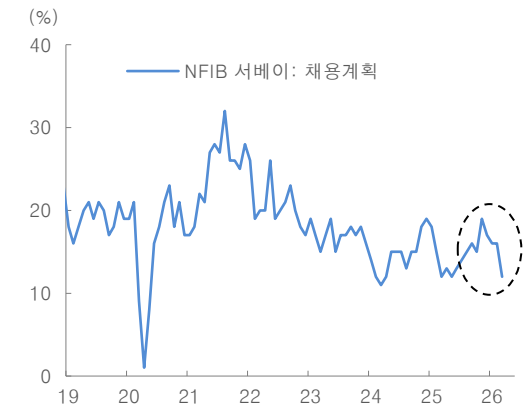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기업들의 심리 반등 감안하면 고용 부진 더 심화될 가능성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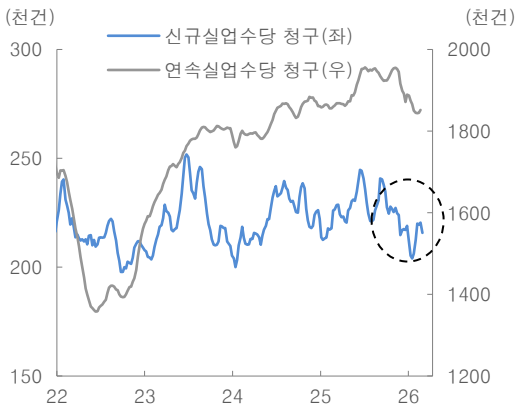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일부 지표들이 악화된 것도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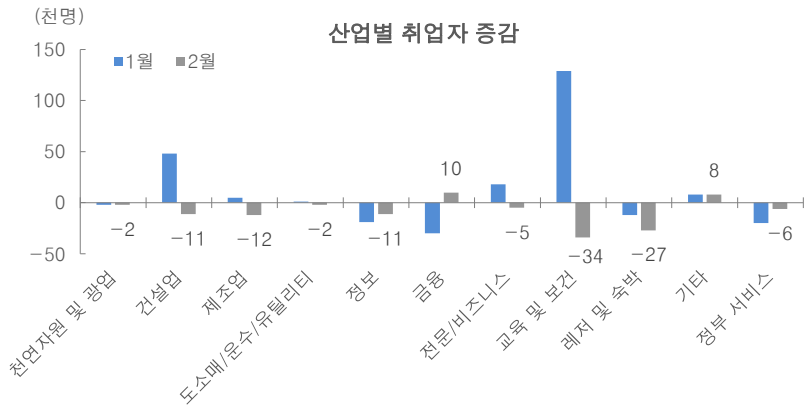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그러나 여전히 대량 해고 조짐 없어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헬스케어 외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2월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이정훈)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